

우리나라 산림이 울창해 지고 있다.

- '95년말 ha당 임목축적 48m³로 밝혀져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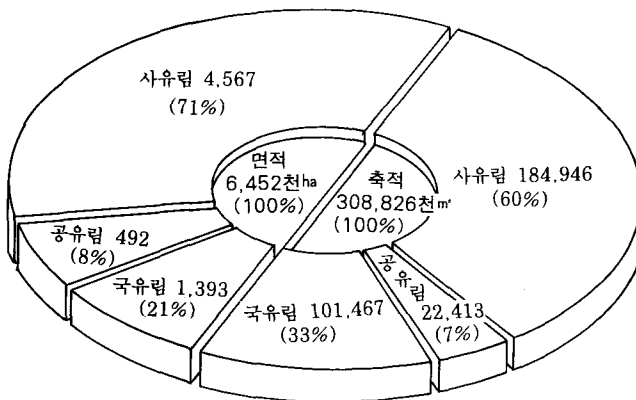
산림청은 '95년말 현재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,452천ha로 전 국토면적의 65%이며 그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임목축적량은 308,826천m³이고 ha당 임목축적은 48m³으로 '94년의 46m³보다 2m³이 늘어 전년대비 4.4% 증가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산림청이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, '95년말 현재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총 6,452천ha중 소유별로는 사유림 4,567천ha로 71%, 국유림이 1,393천ha로 21%, 공유림 492천ha로 8%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이 타 산업용으로 1년동안 전용되어 감소된 면적은 4천ha로

공장부지, 과수원, 농경지, 초지 및 기타 대지, 도로등 생산적인 용도로 대부분 전용 활용되고 있으며 전용면적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.

○ 산림의 울창한 척도를 나타내는 ha당 임목축적은 '94년도의 46m³보다 2m³가 증가한 48m³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시작된 1973년도의 ha당 축적인 11m³보다 4배정도가 증가한 것이며 이러한 성장 추세로 나갈때 2030년에는 현재의 일본수준(124m³)을 능가하게 된다고 밝혔다.

산림면적 및 임목축적



'95년말 현재

연도별 ha당 임목축적 변동추이

